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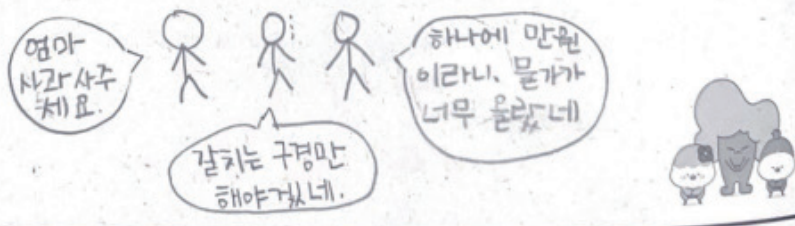
<조선일보 2024. 6. 7. 오렌지주스·코코아값 급등... 세계 경제 최대 폭염 될 '기후플레이션'>

환경 지킴이가 된 첫날!

나는 신문을 보다가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궁금해 찾아보았다. 기후플레이션이란 이상 기후(climate)로 물가가 오르는 것(inflation)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플레이션의 원인은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작년보다 2배 비싸진 사과와 3배 이상 비싸진 갈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슬럼프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상 기후로 인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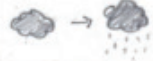
신문 기사에 옳게 세계 경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기후라고 나와 있었다. 더 이상 이상 기후로 인해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은 물 절약부터! 목욕 대신 샤워를 해야지.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날씨



오늘은 부모님과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 했다. 평소 같았으면 배달 어플에서 바로 치킨을 주문했을텐데, 오돌따라 엄마는 장바구니에 커다란 유리 용기까지 쟁겨서 치킨을 사러 가게 하셨다. 나는 치킨집까지 무거운 용기를 들고 가야 해서 짜증이 났다. 치킨집에 도착해서 내가 먹고싶은 맛으로 주문하고 유리 용기를 사장님께 드르면서 여기에 담아 달라고 하자, 사장님께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라며 나를 매우 칭찬해주었다. 선물로 치즈볼 두개를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치킨을 들고 집에 가는 길, 나는 치킨이 들어있는 유리 용기가 무겁지 않을었다. 그리고 아까 집에 엄마한테 짜증을 낸 것에 대해 생각했다. 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나면, 엄마는 유리 용기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도 '환경이름'인 나를 위해 유리 용기를 가지고 치킨을 사러 가지고 해주셨던 것이다.ㅠㅠ 짜증을 내서 너무 죄송했다.

앞으로는 나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가는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는 쉬운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것 같다.



유리 용기 가득 담긴 치킨!
 먹다가 남으면 그대로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쏙~
 다음에는 즉발 포장 도전!!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날씨 ☁️ → ☁️

매주 토요일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분리배출 하는 날이다.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한다는 말인데, 내가 하는 건 배종이니까 분리배출이 맞는 말 같다.

미국에서는 검은 비닐 봉지에 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등도 큰개봉에 넣어서 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모두가 동칭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다면 음료수 페트병을 깨끗이 씻은 뒤 비닐 라벨을 벗기고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는 것이다. 내가 만기기에 위험한 유리나 캔은 아버지가 씻어서 수거함에 넣기로 했다. 아버지가 누가 더 깨끗하게 라벨을 벗기나 내기도 할 수 있어서 분리배출 하는 시간이 참 재미있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재활용품을 버리러 같이 나가자고 하실 때마다 어렵고 냄새난다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같이 분리배출을 했을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매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해야겠다. 아주 열심히~~!



☆ 투명 페트병 배출법

1.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다.
2. 비닐 라벨을 제거한다.
3. 지그러뜨리고 뚜껑을 닫는다.
4. 전용 수거함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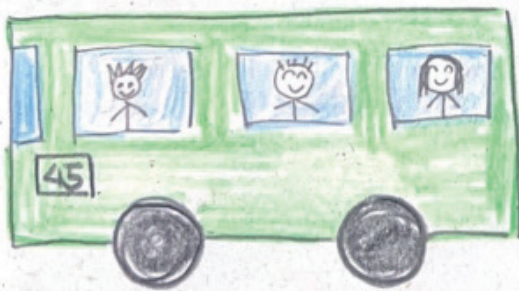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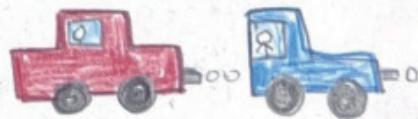
는 집에서 학교까지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한다. 차가 막히면 시간도 걸리는데
동안 엉마차를 타고 다녔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도 갈아타기 귀찮다는
유로, 지하철과 버스를 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정지권이 되었으니 대중교통으로 등교를 해보자는 부모님 제안에 나는 조금
민했다.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교까지 갈 때 타야할 버스와
지하철을 검색하고, 엉마랑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지하철 타고 이동시간 20분,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5분..... 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리니 8시 10분이었다. 평소
엉마차를 타고 학교에 갈 때는 7시 10분에 나와도 8시 10분에 도착하곤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집에서 밥도 먹고 출발할 수 있고, 학교에
까지 도착해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타 버스, 지하철보다 바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많은 시에는
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중간 중간에 걸으니 운동도 되고 길에서 버리는
간도 없고 엉마차 기름도 바꿀 수 있으니 아예 바르 1서 3조이다.
으로도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신다가 된 것이다!



버스가
1등!





2024 년 6월 28일 금요일

날씨 ☀

오늘은 엄마랑 수세미와 세제를 사러 갔다. 빈 통을 가져가면 세제를 담아주고 그만큼 계산하면 되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슈퍼에서 보던 가게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이 났다.

'제로웨이스트샵'이라는 곳었는데, 이곳에는 코코넛 화분, 스티킨 바발대, 공경 무역 커피, 소창행주 등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내가 봤던 세제 리필코너, 수세미도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수세미 모양이 아니었다. 기다랗고 통통한 것이 해수갑기도 하고, 할머니 덕에서 먹어봤던 높은 오이랑도 비슷한 것 같았다.

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는 아크릴 수세미 대신 통통한, 식물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보고 싶어서 통통한 수세미를 골랐다. 주방 세제는 리필통을 집에 두고와서 야만 설거지 비누를 샀고, 이젠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나오고 식물재료를 만들것자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수세미를 팔에 문질러도 보고 (거칠었다 TT) 안에 뭐가 들었나 구경도 했다. 안에 까만 씨가 있었는데, 이걸 식으면 수세미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내년 봄에 할아버지 밭에 심을 것이다. 지금은 수세미를 자르기 위해 물에 불리는 중인데, 빨리리 써보고싶다. 샤워할 때 매수건으로, 설거지용 수세미로, 비누 받침대로도 쓸수있는 만능 수세미인 천연 수세미야! 우리집에 온걸 환영해♡





2024년 7월 6일 토요일

날씨



드디어 지난주에 산 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해보는 날이다! 토요일은 아버지가 설거지 담당인데, 오늘은 나도 같이 하기로 했다. 천연 수세미에 물을 묻히니 딱딱하던 수세미가 말랑말랑해졌다.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주무르다가 설거지 비누를 묻혀서 거품을 내보니 엄청나게 거품이 났다. 나는 조심해서 그릇을 수세미로 닦았다. 헝거리는 아버지가 해서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릇을 아버지가 문지를 때마다 뽕뽕 소리가 났다. 아바아 말이, 그릇에 있는 기름기가 잘 닦이면 나는 소리라고 했다.

그리고 설거지가 끝난 후 수세미를 잘 헝거리면 수세미에 끼었던 음식물이 다 떨어져서 미끈거리는 느낌도 없다. 그 전에 쓰던 수세미는 기름기가 남아서 비눗거리고 엄마가 수세미를 자주 바꾸셨는데, 천연 수세미는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쓸 수 있으니 경제적인 것 같다. (아크릴 수세미 Bye-Bye ~)

신용방통한 수세미를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야겠다. 좋은건 같이 써야 하니까 ~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날씨 ☁️


내일은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그래서 엄마랑 집앞 마트에 가서 도시락 재료를 사기로 했다. 나는 도시락에 과자랑 초콜릿을 꼭 넣고 싶어서 제일 먼저 과자 코너로 달려갔다. 엄마는 샌드위치 재료, 나는 과자와 초콜릿, 음료를 골라서 카드가 딱 잡다.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비닐봉지를 구매하러 갔는데, 엄마는 가방에서 알록달록 장바구니를 꺼내서 물건을 담으셨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100원으로 비닐봉지를 사서 물건을 담는데, 왜 우리는 비닐봉지를 안사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았다. 그러자 엄마는 '장바구니는 여러 번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비닐봉지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 이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가끔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 비닐 봉지에 담아주는데 그걸 다시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게 다 쓰레기였다니...

앞으로는 편의점에 갈 때도 장바구니를 가져가야겠다. 알록달록 예쁜 장바구니를 쓰면 내 마음도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예뻐버릴 것 같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날씨 

어제 아버를 만나러 대전에 왔다. 나는 대전에 가면 늘 과학관에 가서 놀았는데, 오늘은 어린이 과학관에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후변화로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배웠고, 재활용품이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재미있게 보았다. 맥주병은 개끗이 씻어서 다시 맥주병으로 쓰이고, 플라스틱과 비닐은 옷과 건축자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참 신기했다. 나는 예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지에 넣어 버린 적이 있는데, 새 옷과 건축자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같아 괜히 미안해졌다. 앞으로는 분리배출에 더 신경써야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집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나씩 실천해 볼 것이다. (물 절약, 전기 절약, 대중교통 타기,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지구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아지겠지?





2024년 8월 8일 목요일

날씨 ☁

<조선일보 2024. 8. 8 귀찮아서, 1인 가구 늘어... 분리배출 열기가 식어간다>

오늘 신문 기사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귀찮아서', '좁아 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하나 다 채우는데 시간이 길려서' 라는 이유로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예전에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린 적도 있지만, 환경 지킴이가 된 이후로는 누구보다 더 분리배출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은 선별장으로 가서 한 번 더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온갖 쓰레기가 섞여서 골라내기가 쉽지 않단 한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도 분리배출이 안되기에 골라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공지능 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환경 지킴이가 된 후부터 분리배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별장엔 간 플라스틱이 결국엔 다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니.....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났다.

어른들도 환경 지킴이가 되어서 분리배출에 열심히 동참하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지구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건 시간 문제이다. ㅁㅁ

다
먹어버릴
테다!

살려줘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날씨 ☁ → ☀



To. 40살의 강산이에게
안녕?

나는 30년 전의 강산이야.

내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여름은 엄청 더워. 뉴스에서는 올해가 작년보다 덥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울거래.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를 걱정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화가 많이 나버린 지구는 금방 화가 풀린 것 같지 않아.

TV를 틀면 지구 곳곳에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머지않아 식량난이 올까봐 난 너무 무서워. 그리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중에 내가 사는 인천도 바다 속에 잠기게 될거래. 내 추억이 가득한 인천이 물 속에 잠기면 난 슬플거야.

그래서 난 친구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카타는 대신 걷고, 음식은 먹을만큼만 덜어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해. 어른들은 최첨단 기술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30년 후에는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해 사계절이 뚜렷한, 폭염과 폭한이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면 좋겠어. 그리고 남극의 펭귄과 북극의 북극곰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열음이 많아졌으면 해.

40살의 산아! 우리는 지구를 빌려쓰는 거야. 지금 나의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듯 너도 너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걸 잊지마. 2024년에서 나도 열심히 노력할게. 안녕!

From. 2054년의 푸른 지구를 간절히 바라는 2024년의 산이가

